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1991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김 원 경

고려사이버대학교

전 제 아[†]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조손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발표 동향을 보면, 조손 연구는 심리학을 포함하여 노인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5편이었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80편으로 급증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가 약 70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 대상은 조부모와 손자녀를 동시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손자녀 혹은 조부모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손자녀 연구보다 조부모 연구가 많았으며 조부모 대상연구에서도 단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손 연구 전반이 여성노인 연구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손 연구는 일반 조부모 연구가 아니라 손자녀의 양육에 관여하는 여성노인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사회적 지지, 우울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여성 노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조손, 조손가족, 조모, 손자녀 양육, 연구 동향

[†] 교신저자 : 전제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직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Fax : 02-3277-2727, E-mail : jjeon@ewha.ac.kr

조부모, 부모, 손자녀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은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형태였으나 이후 근대 산업사회로 이전하면서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면서 조손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리양육자 내지는 양육의 조력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10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 중 40.7%가 조부모를 대리양육자로 하고 있다(통계청, 2005)는 조사결과는 앞으로 취업모가 계속 늘어날수록 대리양육자로서의 조부모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조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대리양육의 실질적인 책임이 조부모 중에서도 조모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여성노인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아예 부모 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손가족에서의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가 한층 주목받는 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 노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조손가족에서의 조모, 보다 광범위하게는 조손이라는 주제 전반에서의 여성 노인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손가족을 가족 유형의 하나로 분류하여 조사한 1995년에는 조손가족의 수가 35,194가구였고 5년 후인 2000년에는 45,224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 이와 같이 조부모가 세대주

로 되어 있는 경우 외에도 부모의 맞벌이, 질병, 수감, 경제적 무능,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손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조부모를 포함시켜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조손가족은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조손가족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전반적인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증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전반적인 가족의 불안정, 노령인구의 증가 등 일련의 사회 변화가 기존의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전에도 조부모는 부모의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체계로서 존재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시행한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조부모를 아동복지시스템의 일부로 공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정위탁은 위탁주체에 따라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이모·삼촌 등에 의한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으로 나뉘는데, 조부모의 대리양육은 가장 빈번한 배치 선택으로 꼽힌다. 조부모 양육은 다른 형태의 위탁이나 시설 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정서적 안정감도 준다는 이유에서이며(Geen, 2004), 더욱이 혈연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부모는 친인척을 포함하는 확대가족, 지역사회 등에 연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에서도 볼 수 있어서 조손가족의 증가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특징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로 꼽히기도 한다(Fuller-Thompson & Minkler, 2001; Fuller-Thompson, Minkler, & Driver, 1997).

조손가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손 연구도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연구의 동향을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조손 연구가

소수에 불과했으나(조복희, 1977; 서동인, 1989; 서동인, 유영주, 1991), 2009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17편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조손 연구가 곧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니라는 점이다. 조손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한 가구 안에 동거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조손가족 연구라 함은 이처럼 주거를 함께 하는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조손 관련 연구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보다 일반적인 조부모와 손자녀에 관한 연구를 일컫는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이라든가(조석미, 1980),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손자녀의 인식(박의순, 1990) 등은 조손가족 연구가 아니되 조손에 대한 연구에 속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부모가 동거하지 않더라도 손자녀의 양육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조손가족 연구는 아니지만 조손 관련 연구에 포함된다. 다만 조손가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는 물론 조손 일반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조손 연구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조손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여 통합적 이해를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손 연구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함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으로 조손에 대한 개념 정의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손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예컨대, 조부모-손자녀 세대(신은정, 2004), 조부모-손자녀 가족(박창기, 2002;

옥경희 2005), 조손가정(김승훈, 2005; 이미영, 2007; 정일선, 2004; 최혜경, 2006), 조손가족(김미혜, 김혜선, 2004), 조부모가구(윤승희, 2005), 손자녀양육 조부모(권인수, 2000; 최혜지, 2003) 등을 들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조부모가장 가족(grandparent-headed home), 손자녀양육 조부모(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 보호적 조부모(custodial grandparents), 조부모 양육자(grandparents caregivers), 양육자로서의 조부모(grandparents as caregivers), 조모친족관계 양육제공자(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등으로 부르고 있다(김혜선,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조손가족을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욕구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00).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적 보호를 포함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권한과 아동의 일상보호를 제공하는 책임을 포함하는 신체적 보호권한을 가지게 된다(Jendrek, 1994). 미국의 예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그 개념에 대한 중첩된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자들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손 연구의 동향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손가족에 대한 시각이 편협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아직까지는 조손가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전형적인 가정 형태의 밖에 존재하는 임시적

이고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하고 이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많다. 즉, 부모와 자녀라는 2세대 가정을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정상 가정’으로 상정하면서 그 외의 가정 형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배제하며 이 과정에서 조손가족은 사회 문제에 의해 야기된 기형적인 가정 형태로 여기고 많은 가정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사회에 문제를 야기하는 체계로 간주한다. 예컨대 조손가족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켜 가족원 개개인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유미, 이윤희, 2009). 특히, 조손가족 조모의 양육 부담, 우울, 스트레스, 신체적 문제 등을 보고하거나(김미혜, 김혜선, 2004; 김정은, 2002; 박창기, 2002; 이화진, 2004; 이희섭, 2004; 최해경, 2002; Jendrek, 1993; Minkler, Driver, Roe, & Bedeian, 1993), 조모가 담당하는 양육의 질의 부적절함과 이로 인한 손자녀의 적응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지적한다(오선영, 장혜진, 조윤정, 2006; 허남순, 2004). 또한 조손가족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혼 등의 구조적인 문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 등 기능적인 문제에 따라 또래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철회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보인다고 말한다(박미자, 2008; 성지혜, 2001; 송유미, 이윤희, 2009; Brown, 2003). 이러한 조손 연구들은 조손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조손가족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축적될수록 그러한 경향 자체가 조손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한 가지로 견고하게 만들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조손가족이 많아지고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조부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 변화를 체감하는 집단은 조모에 해당하는 노년기 여성들이다. 그러나 조손가족이라는 주제 자체는 조부모 세대와 손자녀 세대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주제이며 조부모 세대는 조부와 조모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모들의 존재가 특별히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손에 대한 연구 속에서 이 주제가 특히 노년기 여성의 문제라는 점이 제대로 부각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조손 연구는 현재 어느 특정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통해 조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손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조부모, 부모, 손자녀라는 3세대가 관련된 이슈이자 이 새로운 가족 형태가 가족 내에서의 변화는 물론 각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적 적응과 생활에도 새로운 양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처럼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동시에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학문 간의 소통을 위해서 그들 사이의 접근방법과 시각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이 조손 연구 전반의 양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조손 연구의 문제의식과 접근 방법을 조망해 봄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조손에 대한 연구 일반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발표된 조손 관련 국

내 연구의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향후 조손 관련 연구가 다루어야 할 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발표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조손 관련 연구의 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조손 관련 연구의 내용별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에서 2010년 10월 1일 사이에 발표된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2010년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셋째, 논문 제목과 주제어에 ‘조손’, ‘조손가정’, ‘조손가족’, ‘조부모’, ‘조모’, ‘조부’, ‘손자녀’를 포함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총 85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조손에 대한 연구 전반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한 가구 안에 동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개념인데, 최근에는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경우, 또 손자녀와 조부모의 동거 기간이나 동거 계기 자체가 유동적인 경우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석대상을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만으로 국한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손 연구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분석 방법

조손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동향을 주제로 삼았던 선행논문을 참조하여(김근영, 광금주, 배소영, 2009; 김미정, 강인설, 2008; 이채호, 최인수, 2009)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분석 기준으로는 연구 발표,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발표 동향 분석

조손 관련 연구의 발표 연도와 게재된 학술지 분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연도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1년 단위로 살펴보았다. 학술지 분야는 특정 분야로 제한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발표된 논문의 학술지별 게재 빈도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동향 분석

연구방법은 논문의 연구 대상, 연구 유형으로 나누어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조손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또는 조부모나 손자녀 중 어느 한 세대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는지, 또는 성인 자녀가 포함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유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중재 연구, 문헌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양적 연구는 수량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의미하며, 질적 연구는 개별 면담을 실시한 자료를 근거로 사례분석을 한 연구를 말한

다. 중재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 조작이나 처치를 가한 후 그 효과를 보는 연구를 의미하고, 문헌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연구 주제 및 내용 분석

선정된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여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이론적인 기초를 세워서 중요한 변인을 사전에 선정, 분류, 논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고찰하여 이를 통해 주요 주제들을 파악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결 과

조손 관련 연구의 발표 동향

연도별로 보았을 때, 총 85편의 논문 중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반 10년간의 발표 연구 수는 총 5편이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조손관련 논문은 총 80편으로 급증하였다. 조손관련 연구들이 발표된 연도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도별 발표 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 1994년에 한 편의 조손관련 논문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5년에 한 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세 편의 논문이 더 발표되어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간 총 5편의 조손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1년에는 조손관련 논문이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2년에 4편, 2003년에 한 편이 발표되었고, 2004년에는 5편, 2005년에는 7편이 발표되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표 1. 연도별 조손관련 논문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편수

	연도	게재 논문 편수
	1994	1
	1995	1
1991-2000	1996-1998	0
	1999	2
	2000	1
소계		5
	2001	0
	2002	4
	2003	1
	2004	5
2001-2010	2005	7
	2006	9
	2007	16
	2008	14
	2009	17
	2010	7
소계		80
합계		85

모두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9편, 2007년에 16편, 2008년에 14편이 발표되었으며, 2009년에 17편, 2010년 10월까지 7편이 발표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3편이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조손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 활발해졌으며 특히 2007년 이후의 최근 3년간 급증하였다.

학술지별 발표 동향을 보면, 조손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35종이었다. 학술지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분류한 결과, 유아·아동·청소년 분야, 노년 분야, 사회복지 분야,

표 2. 학술지별 조손 논문 발표 동향

학술분야	학술지 수	논문 편수
유아·아동·청소년분야	4	6
노년 분야	2	12
사회복지 분야	9	27
심리 분야	1	2
가정·가족 분야	5	21
간호학 분야	5	4
사회학 분야	3	4
교육학 분야	6	9
계	35종	85편

심리분야, 가정 및 가족 분야, 간호학 분야, 사회학 분야, 교육학 분야에서 조손관련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분야별 논문 발표 경향은 표 2와 같다.

분야별 발표 경향은 유아·아동·청소년 분야의 학술지는 4종, 노년 분야 학술지는 2종, 사회복지 분야 9종, 심리분야 1종, 가정 및 가족 분야 5종, 간호학 분야 5종, 사회학 분야 3종, 교육학 분야 6종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의 학술지에서 조손관련 논문 발표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교육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조손관련 논문 발표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학 분야의 학술지를 통해서는 조손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표되었다. 조손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노년학(11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가정관리학, 노인복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모두 각 8편씩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나머지 35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조손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3편이하였다.

조손 관련 연구의 방법론적 동향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논문의 연구방법론적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논문의 연구 대상, 연구 유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조부모 연구, 손자녀 연구, 조부모-손자녀 연구, 조부모-부모의 2세대 연구, 조부모-부모-손자녀의 3세대 연구, 조손가족 세대 전체 연구로 나타났다. 총 85편의 논문 가운데 조부모 연구는 47편에 해당하였고, 손자녀 연구는 22편, 조부모-손자녀 연구 10편, 2세대 연구가 3편, 3세대 연구가 1편, 그리고 세대 전체 연구가 2편이었다. 즉, 조손 관련 연구의 대상은 조부모 세대 및 손자녀 세대의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현저히 많았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조모, 조부, 조부모의 세 가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보면, 조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18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28편이었으며 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참여자는 조모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손 연구의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조모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조손 연구에서 조부모 세대가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그 대상자는 주로 여성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구대상별 경향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유형의 동향은 전체 85편의 논문 중 양적 연구가 59편(약 70%)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례 연구와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가

표 3. 조손관련 연구 대상별 동향

연구대상	논문편수
조부모	28
조부	1
조모	18
손자녀	22
조부모-손자녀	10
조부모-부모	3
조부모-부모-손자녀	1
세대 전체	2
계	85

표 4. 조손관련 연구의 연구 유형별 동향

연구 유형	논문 편수
양적 연구	59
질적 연구	16
중재 연구	4
문헌 연구	3
양적 연구+질적 연구	2
질적 연구+문헌 연구	1
계	85

16편(약 19%)에 해당하였고, 중재연구는 4편, 문헌 연구는 3편이 해당하며,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를 동시에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경우가 2편,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가 1편씩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 조손연구의 유형별 동향을 제시하였다.

조손 관련 연구의 내용동향

조손관련 연구의 주제와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조부모나 손자녀 또는 부모와 같이 개인에 관한 것을 연구의 주제와 내용으로 하는 경우, 둘째는 조손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연구의 주제로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었다. 개인을 다루는 경우, 연구 주제에 대한 측정을 위해 사용된 변인들이 연구마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종속변인의 주제를 기준으로 삼아 연구 내용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개인을 연구 주제로 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를 연구 주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주로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행동 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조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조부모의 역할, 사회적 지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상태, 손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있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관련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김혜선, 2004; 오진아, 2006; 이선형, 이경립, 임춘희, 2009; 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양육행동(옥경희, 정계숙, 천희영, 황혜정, 최성학, 2006; 장희선, 김윤정, 2008), 양육지원이나 양육인식 등과 같이 손자녀의 양육 경험 전반(김승용, 정미경, 2006;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서현, 2009; 장혜경, 손현미, 임정현, 2009; 최혜지, 2009)에 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고 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이미숙, 2010;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는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 수준, 양육 동기, 양육 지원이나 양육에 대한 인식 등이었으며, 그 밖에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 손자녀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변인들로 다루어졌다. 특히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 수준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 때 신체적 건강 수준의 지표는 의학적 진단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부모들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였다(오진아, 2007).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보호요인 혹은 매개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으며(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그 밖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는 양육 동기(가족해체, 자녀의 맞벌이), 양육 지원 등이 있었다(김은주, 서영희, 2007; 박충선, 2010).

한편, 조부모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에서는 생활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김미혜, 김혜선, 2004; 박충선, 2010), 삶의 의미나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다양한 삶의 질 구성 요인(김혜선, 2009; 서혜석, 2005; 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오진아, 2007)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사회적 지지(박경애, 2007; 송유미, 이윤형, 2009), 조부모의 의미와 역할(박화윤, 이영숙, 1999; 이영숙, 2004),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조부모의 정서상태(김혜선, 2005), 손자녀와의 관계 관련요인(최혜지, 2006) 등도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삶의 질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조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삶의 질 관

련변인으로서 또는 삶의 질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서 손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요인들이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밝혀지거나(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들은 대부분이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변인으로 밝혀진 사회적 지지나 조부모의 건강상태 등이었다(배진희, 2007; 오진아, 2006).

손자녀 대상 연구의 주제는 손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손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정서적 문제로 인한 적응문제(김혜선, 2004; 옥경희, 2005; 이정미, 최명선, 2007a; 박미자, 이창식, 2008; 박옥임, 김진희, 2008), 적응유연성(송유미, 2009; 송유미, 이윤형, 2009; 최해경, 2006)이 적응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되었다. 그 외의 연구로는 손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과 같은 자아 관련 연구(박옥임, 김정숙, 2006; 이창식, 박미자, 2009; 이창식, 박미자, 장은순, 2010; 장희경, 조병은, 1995; 전창진, 2009),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 관련 연구(민하영, 2004, 2008; 최명선, 이정미, 2007), 조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이영숙, 박화윤, 2000), 조손가족 내에서의 생활경험 전반에 관한 것(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김진숙, 2009)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주제를 통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의 적응적 특성을 살펴 보고 있으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규명하고 그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는 경향에 치중하고 있다. 즉,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녀가 부모가 양육하는 또래 자녀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조손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 세대의 문제를

설명하기보다는 조부모에 의한 양육형태는 보편적인 양육형태가 아닌 특수한 양육형태로써, 그러한 양육의 결과로서 발달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를 연구의 주제에 포함하는 경우는 주로 조부모-손자녀 양자 간의 역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의 질적 측면이나 역할의 역동, 세대관계에 대한 측정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박경란, 1994; 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矢富直美, 前原武子, 2002). 예를 들어,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 수행에 대해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부모로 둔 손자녀를 비교한 결과 비취업모의 손자녀에 비해 취업모의 손자녀에 대해서는 대리모와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한편, 후자(정책, 제도)에 속하는 연구는 전체 85편 중 5편이다. 이들 연구는 조손가족의 구성원 개인보다는 조손가계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조손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손가계의 경제구조(허경옥, 이현진, 박귀영, 2009), 조손가족의 소득결정 요인 분석(민기채, 2010)을 시도하거나 조손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서홍란, 김양호, 2010) 연구를 수행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의 조손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의 연구

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통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에 조손관련 연구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늘어가고 있는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과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년인구에 대한 관심이 조손연구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손관련 연구의 급증과 더불어 조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학문 분야는 노년학, 유아·아동·청소년 분야, 사회복지, 심리, 가정 및 가족, 간호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조손 또는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이 노년기에 접어든 조부모를 비롯하여 조부모-부모-손자녀 세대로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서 세대 간의 통합적 문제로 학문적 관심이 확장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방법의 동향으로는 양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70%)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나 중재연구, 문헌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양적 연구를 선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양적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계량적 방법의 한계 및 객관화의 한계(Creswell, 2007)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나 문헌 연구, 또는 중재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조손 연구의 내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조손연구에 포함되는 조부모, 부모, 손자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거나 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 내용의 또 하나의 흐름은 조손가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조

손가족 세대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85편의 논문 중 5편의 논문을 제외한 80편의 논문이 모두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연구로 치중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조손 연구는 곧 “조손가정” 또는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조손 관련 연구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부모들은 일반 노인들과 구별하여 손자녀의 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손자녀와의 동거여부, 양육기간, 양육책임, 조손발생 형태 등을 거의 예외 없이 조사하고 있어서 조손 연구가 사실상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손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주제를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손가족의 조모와 손자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특히 199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조손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더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나왔던 연구에서는 양육자 또는 양육의 조력자로서의 조모가 아니라 조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태도가 부모에게 전이되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조복희, 1977). 이후에 나온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조부모의 역할, 조부모와의 관계 등의 연구도 조손가족에서의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아닌 단지 세대로서의 조부모와 손자녀를 다루었다(박의순, 1990; 서동인, 유영주, 1991; 조석미, 1980). 이에 비해 최근의 연구, 특히 2000년 이후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연구가 주로 조손가족의 발생으로 말미암은 변화에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조손가족과 무관한 조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조모가 집중적으로 손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조손가족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동거하면서 양육하기도 하고,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또는 일주일의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손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양육의 성격이나 조부모의 역할 등이 조손가족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형태를 ‘공동양육’과 ‘조손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Bowers & Myers,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을 고려한 국내 연구는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자체도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Stelle, Fruhauf, Orel, & Landry-Meyer, 2010) 국내 연구는 대부분이 조손가족이나 저소득 가정에서 자녀의 이혼, 사별,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해 손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김미혜, 김혜선, 2004; 옥경희, 2005; 최해경, 2006). 조손가족의 발생 원인이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양육의 부재 때문인 경우와 부모 세대의 해체로 인한 경우 조부모의 양육 부담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국내외 연구(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한경혜, 주지현, 이정화, 2008; Haylip,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이미 오래 전에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손자녀 양육을 맡으면서 다

시 부모가 되어 보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박경애, 2007),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조손가족의 증가를 경험한 서구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즐거움, 만족감, 보상감을 경험한다는 연구(Chen & Silverstein, 2000; Cox, 2009; Jendrek, 1994)가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손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자녀가 연구의 초점이 되는 경우는 조부모를 연구의 주 내용으로 삼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손자녀를 연구의 중심내용으로 한 경우는 대체로 손자녀의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의 규명과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점은, 조손가족의 손자녀는 부모가 양육하는 또래 아동이나 청소년과는 다르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손가족의 아동과 일반 가정의 아동의 비교를 시도한 소수의 국내 연구에서는 행동문제 전반에 걸쳐 조손가족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과잉행동이나 불안행동 등의 행동문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으며 더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미, 최명선, 2007b). 이와 같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양 쪽을 비교하여 연구한 경우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므로 향후 연구 주제로 조손가족의 손자녀가 부모가 양육하는 또래 아동이나 청소년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가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연구 동향은, 대부분의 연구가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부모의 자녀 양육과는 구별되는 비전형적, 임시적, 문제적 형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보면, 대체로 조손가족의 질적으로 열악한 삶, 양육의 부적절함, 손자녀의 부적응 등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연구 결과들 중심으로 학문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손가족의 긍정적 측면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의 긍정적 측면을 보고한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Solomon과 Marx(1995)는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던 아동들에게 조부모가 개입하여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고, Brian(2000)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지적 가족 분위기와 훈육구조를 제공할 때 손자녀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손가족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관점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면 조손가족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는 편향된 시각이 고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차후 조손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의 긍정적 측면을 밝혀줄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조손가족의 증가는 조부모의 자녀 양육과 자녀 지원이 손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조모가 양육에 매달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핵가족 내에서 양육 제공자가 감소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 해체와 가족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자녀 양육은 점차 개별 가정, 특히 여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동향에 의하면, 조손가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손이라는 주제는 실질적으로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조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조부모 가운데 누구라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라도 실제 응답자는 조모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은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의 책임은 사실상 조모에게 주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조손가족 또는 손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은 유독 노년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손가족의 조모들이 성인기에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노년기에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돌봄(caring)은 여성에게 있어서 어느 한 시기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이숙현, 2005; Marshall, 2006; Ravanera, Beaujot, & Liu,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족의 증가라는 현상은 조부모 세대 전반에게 양육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은 있어도 그것이 특히 노년기 여성에게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조손가족이 누구보다도 노년기 여성에게 절실한 문제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연구를 노년기 여성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조부와 조모의 분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참여와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축적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조부모라는 한 범주 안에서 조부와 조모의 역할과 책임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다. 성인자녀와 관계 속에서의 조부모, 또는 손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조부모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계기로 일어나는 조부모의 부부관계의 변화도 역시 도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의 증가를 여성 문제라는 시각에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손과 관련된 정책, 제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비와 의료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조손가족에서 자라날 아동과 청소년 인구를 감안할 때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 조손가족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초 연구가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조손가족 조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구체적 지원이나 개입의 성격과 내용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인수 (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근영, 광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미정, 강인설 (2008). 애착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95년~2007년.

- 아동학회지, 29(5), 165-180.
- 김미혜, 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승용, 정미경 (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승훈 (2005). 조손 가정의 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사례연구: 경북성주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서영희 (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질적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김정은 (2002).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영향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2009). 조손가족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223-248.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85-117.
- 김혜선 (2005). 농촌과 도시 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341-378.
- 김혜선 (2009).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노인복지연구, 43, 61-92.
- 민기채 (2010).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구성원과 총소득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30(2), 323-341.
- 민하영 (2004).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23-34.
- 민하영 (2008). 부모간 갈등 및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33-41.
- 박경란 (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 중·고등학교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14(2), 74-89.
- 박경애 (2007). 사회적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25-45.
- 박미자 (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자, 이창식 (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0(1), 93-114.
- 박옥임, 김정숙 (2006). 조손가족과 3세대가족 손자녀의 가족생활적응 및 자존감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1(3), 129-139.
- 박옥임, 김진희 (2008).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 3세대 가족과 비교 제목. 한국가족복지학, 13(3), 73-88.
- 박익순 (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기 (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족의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충선 (2010). 조손가정의 형성원인과 양육경험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 105-125.
- 박화운, 이영숙 (1999).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의 영유

- 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29, 67-94.
- 서동인 (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 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45-60.
- 서동인, 유영주 (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아동학회지*, 12(2), 154-172.
- 서현 (2009).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어려움. *한국생활과학*, 18(1), 13-27.
- 서혜석 (2005).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0(3), 61-81.
- 서홍란, 김양호 (2010).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강점기반 집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노인복지연구*, 47, 161-186.
- 성지혜 (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유미 (2009). 조손가족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의 발달 경로모형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5(2), 143-164.
- 송유미, 이윤형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간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3, 111-133.
- 신은정 (2004). 조부모손자녀세대의 가족기능과 손자녀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소정, 정경미, 김원경 (2008).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15-432.
- 오선영, 장혜진, 조윤정 (2006).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아동권리연구*, 10(4), 557-604.
- 오진아 (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 오진아 (2007).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 구조모형. *아동간호학회지*, 13(2), 201-211.
- 옥경희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55-65.
- 옥경희, 정계숙, 천희영, 황혜정, 최성학 (2006).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25-36.
- 윤승희 (2005). 조부모 가구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 (2010). 장애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의 긍정적 적응을 위한 양육스트레스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119-145.
- 이미영 (2007). 조손가정 형성과정 및 생활실태. *복지행정논총*, 17(1), 203-230.
-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

- 지, 42(4), 69-84.
- 이선형, 이경림, 임춘희 (2009).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4), 57-77.
- 이숙현 (2005). 여성과 돌봄: 모성과 부양의 여성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133-149.
- 이영숙 (2004).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73-681.
- 이영숙, 박화운 (2000). 유아기 손자녀가 기대하는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11-232.
- 이정미, 최명선 (2007a). 조손가정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동 행동문제. *놀이치료연구*, 10(1), 63-72.
- 이정미, 최명선 (2007b). 조손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지각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28(2), 205-216.
- 이지연, 정경미, 김원경 (2008). 중산층 양육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25-341.
- 이지연, 김원경, 정경미 (2009).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 - 주 양육모, 부분 양육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29(2), 441-458.
- 이창식, 박미자(2009).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3세대가족 청소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51-172.
- 이창식, 박미자, 장은순 (2010). 조손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1-20.
- 이재호, 최인수 (2009). 유아 창의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30(5), 1-8.
- 이화진 (2004). 조손세대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섭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손현미, 임정현 (2009). 조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기술지: 다중의 경계 밖에 가족 만들기. *한국사회복지학*, 61(1), 109-134.
- 장희경, 조병은 (1995). 맞벌이 가족의 조모 - 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6(1), 211-224.
- 장희선, 김윤정 (2008).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0, 7-29.
- 전창진 (2009). 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5(2), 197-224.
- 정일선 (2004). 농촌 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적응.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矢富直美, 前原武子 (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1(3), 213-229.
- 조복희 (1977). 조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2), 75-82.
- 조석미 (1980).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

- 식구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0, 97-131.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2009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재. 보건복지가족부.
- 최명선, 이정미 (2007). 조손가정 아동의 외로움 연구. *놀이치료연구*, 10(2), 33-43.
-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22(3), 207-222.
- 최해경 (2006). 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유연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 37-58.
- 최혜지 (2003). 미국 손자녀 전담양육 조모의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세대간 관계와 과거 결혼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46-358.
- 최혜지 (200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조부모-손자녀 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3), 641-655.
- 최혜지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이해: Sen의 인간존재실현력(human capability) 패러다임을 통한 접근. *한국인구학*, 32(3), 103-126.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nso.go.kr>.
- 한경혜, 주지현, 이정화 (2008). 조손가족 조모가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의 보상과 비용. *한국노년학*, 28(4), 1147-1164.
- 허경옥, 이현진, 박귀영 (2009). 조손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 확대가계 및 핵가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소비자정책연구*, 5(1), 69-84.
- 허남순 (2004). 친인탁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징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243-270.
-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 303-311.
- Brian, S. T. (2000).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bring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Ph.D. Dissertation. Arizona University.
- Brown, L. B. (2003).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 in-depth phenomenological study*. The New Mexico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Chen, X. & Silverstein, M. (2000).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in China. *Research on Aging*, 22(1), 43-65.
- Cox, C. (2009). Custodial grandparents: Policies affecting care.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7, 177-190.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 Sage Publications.
- Fuller-Thompson, E. & Minkler, M. (2001).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 201-209.
- Fuller-Thomp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 406-411.
- Geen, R. (2004). The evolution of kinship care policy and practice. *The Future of Children*,

- 14,(1), 130-149.
- Hayship, B. Jr., Shore, J., Henderson, C., & Lambert, P. (1998). Custodial grand 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53B*, 164-173.
-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09-921.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 206-216.
- Marshall, K. (2006). Converging gender roles. *Perspectives on Labour and Income, 18*, 7-19.
- Minkler, M., Driver, D., Roe, K. M., & Bedeian, K. (1993). Community intervention to support grandparent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3*(6), 807-811.
- Minkler, M. & Roe, K. M. (1996).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20*(1). 34-38.
- Ravanera, Z., Beaujot, R., & Liu, J. (2009). Models of earning and caring: Determinants of the division of work.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46*(4), 319-337.
- Solomon, J. C., & Marx, J. (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Stelle, C., Fruhauf, C. A., Orel, N., & Landry-Meyer, L. (2010). Grandparenting in the 21st century: Issues of diversity in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3*(8). 682-701.
- U.S. Bureau of the Census (2003). *U.S. grandparents living with grandchildren: 2000. U.S. Bureau of the Census.*
- 1 차원고접수 : 2010. 11. 1.
심사통과접수 : 2010. 12. 14.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5.

Research Trends Concerni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Korean Journals 1991~2010

Wonkyung Kim

Jaeah Jeon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Ewha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nalyzes research trends in scholarly paper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rom 1991 to 2001 concerni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The numbers of articles o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has been increasing from 5 in 1990s to 80 in 2000s in the fields of gerontology, family studies, social welfare, child study, and education altogether. A large number of papers focused on grandparents, especially on grandmothers, who have been fully or partially responsible for grandchildren rearing for their adult children addressing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papers, taken together, tended to imply that grandchildren rearing became more critical than ever in the life of elderly women.

Key words : grandparent-grandchildren, grandmother, parenting grandchildren, research trends